

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	
번호	34

제출년월일 : 1993. 6. 6.

제출자 : 충청북도교육감

□ 개정사유

- 문광국민학교와 광덕국민학교의 동문화 및 지역주민의 통·폐합 건의사항 수용
-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및 교육의 내실화 도모
- 인력 및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

□ 주요골자

- 폐지학교명 : 동인국민학교 문광분교장
- 교명 변경 : 광덕국민학교 → 문광국민학교

□ 개정근거

- 교육법 제82조(설립자) 및 교육법 제85조(학교의 설립·폐지)
- '93. 국민학교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소규모학교 통·폐합 변경 계획

□ 조례안 : 별첨

□ 기타 참고사항 : 별첨

- 교육장 의견서
- 학교장 의견서
- 지역주민 의견서
- 관련 신문기사(동양일보 '93. 3. 5.)

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(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) 의 별표4 국민학교중 "동인국민학교 문광분교장"을

삭제하고 "광덕국민학교"를 "문광국민학교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별표 4)

신·구 대비 표

< 국민학교 >

현 행		개정		비고
명칭	위치	명칭	위치	
주성국민학교	충청북도 청주시 영동 48번지			
생 략	생 략			
<u>동의국민학교</u> <u>문화교장</u>	<u>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신기리 111번지</u>	작	제	폐지
생 략	생 략			
광덕국민학교	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294번지	문광국민학교		교명변경
생 략	생 략			
부 칙		부 칙		
(생 략)		이 조례는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		

참 고 자 료

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관련서류

○ 교육장 의견서

○ 학교장 의견서

○ 지역주민 의견서

○ 관련 신문기사

교 육 장 의 견 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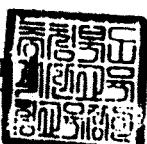
< '93. 9. 1 통·폐합(안) >

- 0 우리군 문광면에 소재한 문광국민학교 ('36. 6. 15 개교)와 광역국민학교 ('68. 6. 1 개교)는 이농 현상에 따른 농촌 인구 및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로 문광국민학교는 '93. 9. 1자로, 동인국민학교 문광분교장으로 개편이 확정되고, 광역국민학교는 '94. 3. 1자로 동인국민학교 광역분교장으로 개편을 추진중 (행정예고)에 있던 중
- 0 '93. 3. 8 문광/광역 양교 학교장, 동문회, 학부영 대표 및 민내 주민 유자 대표 21명이 언명으로
1. 문광국민학교를 광역국민학교에 통합
 2. 학교명은 문광국민학교로
 3. 통학버스 지원
 4. 통합교(광역국) 환경 개선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여 '93. 9. 1 자로 본교 통·폐합을 희망하는 건의서를 제출하여 왔음.
- 0 건의서 내용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'93. 9. 1자의 본교 통·폐합은 시기가 촉박하고 종도 통·폐합에 따른 학습 분위기 저해, 통학버스 지원 및 교원 수급 등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
1. 학생 수용 시설에 이상이 없고
 2.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및 인적 물적 원의 효율화 도모
 3. 절차의 번거로움 해소 (동일교를 6개월 간격으로 분교장 개편, 통·폐합 등)
 4.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민의 존중
 5. 통학버스 지원시 ('94. 3. 1) 까지 통학비의 지원 등 문제점을 최소화 하면서

'93. 9. 1자로 본교 통·폐합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.

1993. 3.

충청북도괴산교육청교육장 손



충청북도교육청 교육감 귀하

학 교 장 의 견 서

소규모학교 통·폐합 여건 조성 지침에 비추어 볼때 광덕국민학교와 문광국민학교는 적령아동 감소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와 교육 효과의 증대 그리고 인력 및 교육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하는등 소규모 학교 통·폐합 대상교의 조건을 갖추었으나 양교 부형 및 동문회에서 의견을 합의치 못하다가 양교의 동인국민학교 본교장 격하 행정예고에 따른 지역주민의 여론으로 문광면 내 1개교 유치 운동이 확산 되어 93. 2. 24일 양교 부형 및 동문 대표와 지역사회 번영회 임원 연석회에서 별첨 건의서와 같이 두학교를 통·폐합하기로 결의 함에 이르렀고 이에 광덕국민학교장과 문광국민학교장은 이 결의 내용에 전적으로 찬동하고 교육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.

1993년 3월 일

광덕국민학교장 채 풍

문광국민학교장 이 달 의

건의서

관리 25215-4218호(92.3.12)에 의거 문광국민학교가 인근 광덕국민학교 본교장으로 격하 하도록 행정예고를 받은 후 학부모 및 동문회에 홍보하는 과정에서 양교를 통폐합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에 따라 문광과 광덕국민학교 부형 및 동문회 대표들이 3차례 걸쳐 협의 했으나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던 중 관리 25215-1476호(92.10.6) 공문으로 문광국민학교는 93.9.1자 광덕국민학교는 94.3.1자로 동인본교장으로 격하가 예정됨에 따라 93.2.24일 양교 부형대표 및 동문회 대표 그리고 면번영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1개면에 1개 교 유치를 위한 협의결과 양교를 통합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 내용을 건의하오니 교육장님의 적극적인 선처를 요망합니다.

다음

1. 학교명 : 문광국민학교
2. 통합교 : 현 광덕국민학교
3. 통합시기 : 1993. 9. 1
4. 통합 전제조건
 - 가. 원거리 어린이 통학을 위한 학교버스 구입 지원
 - 나. 통합으로 절약되는 예산 전액 및 특별예산을 배정하여 지역 중심학교로 육성해 주실 것 (시설, 교육자료)
 - 다. 통폐합으로 폐지되는 학교 교직원의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할 것. 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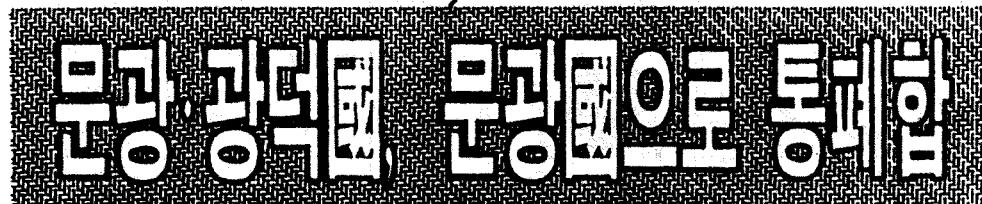
1993년 2월 24일

93. 2. 24일 반영희 참석자 명단

주소(직위)	성명	날인	주소(직위)	성명	날인
반영희장	안 죽구		방영희	이 씨경	
교신호의원	유진경		신기리	김재만	
초당동은 회장	김태일		장덕리	김재아	
장덕동은 회장	이재덕		문양	한부모회장	
금암동 우리집	김 낙희		문양	자모회장	
장덕고객우리 회장	이 쟁애		한부모회장	김 정근	
광복동은 우회장	전명숙			김 정남	
대봉리	조경식				
신기리	조혁주				
동광리	조홍주				
장덕리	채춘영				
전장	김창우				
금병리	김순원				
장덕리	김태진				

동양일보 (193.3.5. 금요일)

광복국동문 양보로 校名지키기 1년 攻防 타결



[괴산] 교육청이 봄에 학교에 따라 교영유 지를 놓고 마침표 빼었는데 예산군 문화면 소재 문파·관단국 암·병고을 이 지난 2월 관단국 동 문들이 망가로 문파국 괴이 떠돌아온다. 봄이었는데 괴짜이로 헛이었다.
(교보 92년 1월 29일자 보도)

지난해 3월 예산교 이전에 학교를 봄에 문파국(교장 이재희. 문학면신기리 1-19)을 면소재지내의 광복국교 (교장 체홍희·문광희) 광 대리 295-5)의 광교 장으로 격하시킨다는 방침에 밟하자 문파국과 봄문화의 기생방법이 시장된 괴짜지키기(사설 상의 괴짜지키기)싸움이 만 1년을 채우고 끝나게 되었.

양 교과 위원회는 21 일 문화면 주민회 주최로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모임에 갖고 관단국 광 문파국의 괴짜를 끌어냈으나 이자리에서 괴짜는

동문회장 이재희씨는 약 봄날의 마침표 계 술 도면 두 학교 모두가 운데 타 교과의 문교장 하 될것이 험하 이성 면 전체의 괴짜로 지역회원을 아침 괴짜국들이 양 노기로 봄문화에서 계약 했단고 끝였다.

지난해 양 문교회의 경우 국의 문교회로 괴짜로 이들이 괴짜인데이 달 초 괴짜국교가 지난 년 괴짜국교 대체 문파 교로 부터 괴짜로 전래의 오랜 역사 를 물어 둘어 괴짜국교로의

분교 전족은 있겠지만 그는 인장이었다. 광대 국교학 또한 네조 교육 청이 불교학조차 대상이 문파국이었다. 봄문화는 문파국이었다. 문파국은 문파국이었다. 사리면의 괴짜로 괴짜를 대표하는 괴짜이 괴짜 이를 때 같았던 고 지양한 예도 있다며 모 지속해 왔었다. 학연 이전에 괴짜국 이 괴짜에 따라 전족을 위한 괴짜를 교전족을 위한 괴짜를 현 면소재지내 괴짜국 교교사를 쓰려 교영운 '문광'을 갖게 됐다.